

International Monetary System

Hallym University, Prof. Sun-Joong Yo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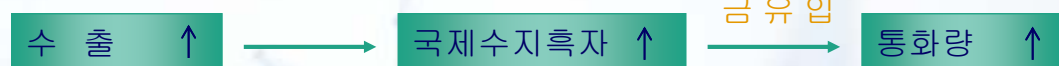
금본위제도(Gold Standard) : -1914년

◆ 정부가 화폐를 제조함에 있어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비축해 둠으로서 화폐와 금과의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

◆ 금본위제도 하에서의 환율

- 각국 통화의 금 평가 (gold parity)에 의해 결정
-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

◆ 금본위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균형



◆ 금본위제도의 붕괴

- 금 산출량의 부족 및 특정국에 대한 금 편재
-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국 물가수준의 급격한 변화

국제통화제도의 혼란기 : 1914-1944

- ◆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교역이 혼란스러워지고 금 태환이 중단되어 각국의 통화가치가 타국의 통화에 대해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변동환율제에 의해 결정되었다.
- ◆ 그러나 환율변동이 심화되어 교역이 둔화되었고 금본위제도로의 복귀시도가 실패로 끝나 국제수지 조정 메카니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짐.
- ◆ 하지만 대공황 이후 각국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시켜 세계교역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강대국이었던 미국, 영국, 프랑스는 지나친 평가절하를 피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.
- ◆ 그러나 이러한 협력체제도 제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무너지게 되었으며 세계경제는 새로운 통화질서를 기다리게 되었다.

브레튼우즈 체제 : (1944 - 1971)

- ◆ 서구 열강들은 1차 세계대전 직후 각국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에 의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혼란, 각종 무역제재로 인한 국제교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고, 2차 대전 후 협력과 교역을 통한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모색하였다.
- ◆ 이를 위해 1944년 브레튼우즈에 모여 금환본위제도(Gold Exchange Standard)를 근간으로 국제통화기금(IMF)과 세계은행(IBRD)을 설립키로 하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하였다.

브레튼우드 체제 (2)

◆ 브레튼우드 체제는 금환본위제도라고도 불리움

◆ 금환본위제도(Gold Exchange Standard)

- 각국의 통화는 달러로의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고 달러는 다시 금으로의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는 즉, 달러만 금으로 금태환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.
- 이러한 금과 달러, 달러와 각국통화와의 이중적인 연결고리 때문에 이중체제(Dual System)라고도 불리움
-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금을 보유하도록 요구됨



브레튼우드 체제 (3)

◆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의 환율

- 각국의 통화와 달러화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
-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이나, 좁은 밴드의 범위(1%) 내에서는 조정 가능

◆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의 국제수지 균형

- 국제수지의 근본적 불균형 → 환율 변경 → 수출경쟁력 제고 → 수출경쟁력 제고 → 국제수지 균형 회복

◆ 브레튼우드 체제의 문제점

- 유동성 딜레마 (Liquidity dilemma)
 -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누적 → 달러의 국제공급 _____, 달러가치 _____
 - 미국의 국제수지 흑자 누적 → 달러의 국제공급 _____, 달러가치 _____
- 미국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

스미소니언 체제 : (1971 - 1973)

◆ 탄생배경

- 1960년대 미국의 무역적자, 베트남 참전으로 대외채무가 증가하여 1971년 대외채무가 금보유량의 3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달러와 금의 환금성에 위협을 받게 되어 각국은 금태환을 요구하게 되었다.
- 이에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정지를 발표하였고 이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.

◆ 스미소니언 협정 (1971, Smithsonian Agreement)

-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
- 금환본위제도의 포기 → 달러본위제
- 달러와 금의 기준환율을 35USD/oz에서 38USD/oz로 하여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일본, 독일 등 국제수지 흑자국들의 통화가치는 절상시키며 환율의 변동폭은 1%에서 2.25%로 확대하였다
- 1973년 2월 계속되는 무역수지적자와 달러 투매로 42.22USD/oz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였고 영국, 스위스 등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게 되는 등 스미소니언 체제가 붕괴

킹스턴 체제 (Kingston System) 1973 - 현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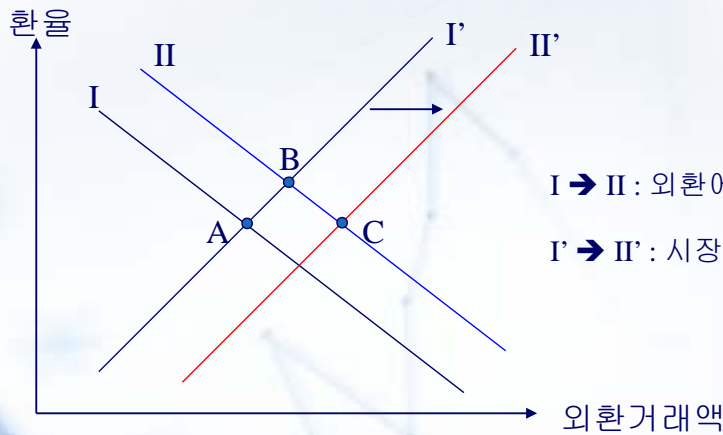
◆ 기본개념

- IMF 회원국들에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여, 변동환율제도를 인정
- SDR (Special Drawing Right) 본위제의 도입
 - IMF 특별인출권
 - 국제수지 적자 → 외화부족 → SDR을 외국의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 → 외화인출 후 결제

◆ 킹스턴 체제 이후의 외환시장

- 약(弱) 달러의 지속
 - 80년 대 초반 미국의 통화긴축/재정확대 정책 기간을 제외하면, 지속적인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경험
 - 플라자 협정 (1985년): 달러화 가치의 대폭 평가절하
 -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/무역적자 누적
- 유로화의 도입
 - 1999년 1월 출범한 EU의 단일통화

Exchange Rate System



I → II: 외환에 대한 _____ 증가
 I' → II': 시장개입에 의한 _____ 증가

- 초기 균형점: 점 _____
- 고정환율제도 (Fixed exchange rate): 새로운 균형점은 점 _____ 또는 점 _____
- 자유변동환율제도 (Floating exchange rate): 새로운 균형점은 점 _____

세계 각국의 환율제도

- ◆ 현행 국제통화제도는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선진국들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상 더 많은 국가들이 특정통화나 통화바스켓에 연계된 반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.
- ◆ 본 절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화제도를 변동환율제도, 단일통화연계제도, 바스켓통화연계제도로 나누어 분류해 보기로 한다.

◆ 독립변동 (35개국)

- 다른 나라 환율의 변동에 연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제도를 말한다.
- 그러나 환율이 독립변동한다고 분류되는 국가들도 외환시장의 불안정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환율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환율개입이 발생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립변동이라 보기는 어렵다.

◆ 관리변동 (51개국, 준 변동환율제)

- 변동환율제도하에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수시로 환율의 결정에 관여하여 일정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엄격한 의미에서는 거의 모든 변동환율제도가 사실상 관리변동환율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대부분의 나라가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.

◆ 변동폭 제한 제도(5개국)

- 고정된 특정 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1% 이상의 변동제한폭을 갖는 환율제도를 말한다.

◆ 크롤링 페그제도(6개국)

-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비율 또는 선별된 몇 개의 수량지표의 변동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크롤링 페그제도에 환율변동제한폭이 부과되면 크롤링 밴드제도라 한다.

◆ 집단변동환율(Euro)

- 환율이 집단으로 함께 변동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유럽통화시스템(ERM)의 국가들이 대표적이었으나 2002년 7월 유로화가 출범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.

단일통화 연계 제도

- ◆ 한 나라의 경제 및 대외무역이 특정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그 나라의 환율은 특정국가 통화와는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되 여타 국가들과는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◆ 달러연계 (21)
 - 미국 달러화의 가치에 연동하여 자국통화의 가치를 결정짓는 제도인데 약 21개국 이 이를 채택하고 있음
- ◆ CFA프랑연계 (14)
 - 주로 프랑스의 식민지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환율을 프랑스 프랑에 연계시키는 제도
 - 하지만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에는 유로화와의 교환비율이 655.975:1 로 결정되었음

◆ 기타통화 연계 (31)

-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거나, 인접국가와 통화를 연계해 환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
- 부탄이 인도의 루피와 연계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

Q & A

Hallym University, Prof. Sun-Joong Yoon

